

Bayer, TDI 플랜트 규모화 촉진

코스트 개선 위해 MDI도 대규모화 ... 일본 MDI는 계속 가동

Bayer Polymer와 Sumitomo Chemical의 합작기업인 Sumika Bayer Urethane은 2004년 3월까지 일본 Niihama 소재 TDI(Toluene Diisocyanate) 1만4000톤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독일 Leverkusen 소재 TDI 3만4000톤 플랜트 및 Cydsa와의 합작 플랜트인 멕시코 Coatzacoalcos 소재 TDI 2만톤 플랜트는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다.

Bayer은 코스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기존 TDI 플랜트를 세계적인 규모의 생산설비로 전환할 계획인데 현재 Bayer의 TDI 생산은 텍사스주 Baytown 및 웨스트버지니아주 New Martinsville, 독일 Brunsbuettel 및 Dormagen 등 4개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생산능력은 총 50만톤에 달한다.

Bayer은 TDI와 마찬가지로 MDI 생산능력 합리화도 추진하고 있으나 Sumika Bayer Urethane은 일본 Niihama 소재 MDI(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플랜트는 계속 가동할 예정이며 아직 폐쇄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Bayer 및 Shell Chemicals은 2003년 초 MDI 3만6000톤 합작 플랜트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TDI 3만톤 플랜트도 가동이 중단됐으나 Shell이 생산량 전량을 회수하고 있다.

한편, Bayer은 폴리머(Polymer) 뿐만 아니라 PU(Polyurethane) 생산라인의 코스트 효과를 높이는데도 주력할 계획으로 소규모 PU 플랜트를 폐쇄하고 대규모 생산라인 가동에 주력하기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Bayer의 폴리올(Polyol) 생산능력은 총 110만톤으로 New Martinsville 및 Antwerp, Dormagen, 텍사스주 Channelview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1/26>